

# 오피니언

## 월/요/광/장

### 한 희 원



어김없이 봄이 왔다.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던 지난 겨울이 가고 초봄, 그 싱그러운 푸르름이 대지를 물들인다. 요즘 돌아오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자연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 또다시 봄은 오고 세월은 감처럼 흘러 겹겹이 쌓인다.

아침 신문에서 세기의 미녀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중학교 시절이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몽고메리 크립프가 주연했던 '젊은이의 양자'라는 영화를 보고 며칠간 가슴앓이를 했던 기억이 난다.

시골에서 성장한 가난한 청년과 재벌가의 아름다운 아가씨 사이에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이 영화는 1950년대 암울했던 미국사회 젊은이의 이야기로 깊은 방황과 절망, 공허가 깃든 배우들의 눈망울이 화면 전체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금요과동부터 젊은이의 처지와 겹쳐져 다시 한번 미인의 죽음과 함께 흐릿한 상념으로 빠져들게 했다.

지난 몇해 전 우리는 소중한 분들을 떠

나보내야 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박경리·박완서 선생님 등. 답답하지만 한 남북문제나 어려운 난제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자연 재앙으로 온 세상이 요동칠 때 소중한 지혜

## 탐욕의 시대 예술가의 역할은...

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분들의 빈자리가 요즘처럼 안타깝게 느껴지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세월 속에서도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섬진강변엔 매화가 피고 산수유가 피었다. 조금 있으면 백련사의 동백꽃이 피고 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올 것이다. 섬진강변 산자락에 자리 잡은 매화는 안개가 자욱한 날에 더욱 절경이다. 매화와 안개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즈음에야 봄의 시간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꽃에 취해 강을 찾고 길을 걷는다. 그렇지만, 이번 봄에 꽃을 만나려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과 방사선 피해 공포, 그리고 겨우내 구제역으로 죽어가 아무렇게나 파묻힌 수백만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쩡쩡하기 때문이다. 또 아랍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열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소식은 같은 아픔을 겪은 우리들로서는 평평 꽃망울을 터지는 봄 소식에 마냥 행복해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지난 25일 찾았던 가수 나윤선의 광주 공연에서 반주를 맡을 예정이었던 프랑스

뮤지션이 한국도 일본 방사능 피해가 예상돼 가족들의 만류로 한국에 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는 남의 나라 일이 그 나라의 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몇 년 전 뉴욕에서 일어난 금융과동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풀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잘못되면 전체가 파멸된다는 것이고, 파멸의 근본적인 요인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있다는 것이다. 불의 시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

쳐 석유와 원자력시대까지 인간들의 거침없는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을 잃게 하여 역으로 그 고통이 이제는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는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몇해 전 뉴욕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참석차 그곳에 도착했을 때 허드슨강 너머로 보이는 마천루의 모습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처럼 보여 아름다움과 함께 두려움이 느껴졌다. 마치 자본의 힘이 신의 자리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시대에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잘 팔리는 문화마케팅도 중요 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성과 자연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예술을 통해 전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어느 문화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말처럼 자본의 추구만이 최상의 법칙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근원성을 회복하는 일이 세상을 변화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진정한 행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극인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그려야 봄을 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서양화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 설

### 금호타이어 파업·직장폐쇄 장기화 안 된다

금호타이어가 25일 노조의 전면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단이 “노조 파업을 이해할 수 없다.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며 워크아웃 종단을 시사해 파국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경영난 악화로 워크아웃 상태일 뿐 아니라 유가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의 리콜사태까지 발생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존속 자체가 위태로운 게 사실이다.

문제는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차이가 크다. 이번 사태로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면서 더욱 상황이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파업이 사측에 단체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노조의 임단협 요구와 파업이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파업 불법화 약속서’를 둘러싸고 벌이는 노조의 출근 거부 역시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사측은 파

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받고 직장폐쇄를 해제할 방침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심해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간의 정면 충돌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으로 지역민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쳤던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정상화 문턱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태는 회사 회생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회사와 280여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다시금 노사 모두에게 촉구한다. 회사와 임직원, 지역사회 모두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파국만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다. 한번 공멸의 길로 들어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 어린 학생보다 못한 시 교육청 간부 분별력

광주시교육청 산하 한 기관장이 직원들을 자신의 전원주택 청소 등 무리 사적인 일에 동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감은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교육청 간부라는 사람이 어린 학생보다 못한 분별력으로 공사(公私)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A 기관장은 지난 11일 오후 광주 근교 장소에 있는 자신의 전원주택에서 장학사와 직원 등 6명과 함께 2시간여 동안 김나무 가지치기, 거름주기, 주변 청소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7명은 이날 장성 홍길동 생가와 수련원 탐방 목적으로 공식 출장까지 냈다고 한다. 하지만, 출장지는 아예 들리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이 내부 고발에 의해 문제가 되자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다가 재조사에 들어가자 그때 서야 시인하고, A 기관장은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평일에 그것

도 출장을 사칭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만도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양심까지 속이려 했으니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또한 공사를 제대로 구별 못 한 A 기관장도 문제지만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 해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상식 밖의 일에 동원된 직원들도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학생 교육을 지도감독해야 할 시간에 상사의 전원주택 청소나 하고 있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번 일만 광주시 교육현장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 교육청은 사실 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 개혁도 직원 개개인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공명불에 지나지 않는다.

들과 기록처럼 교육감과 교직원들이 따로 노는 광주 교육현실이 너무 걱정된다.

## 법조칼럼

### 문 방 진



한창 가족과 사회의 사랑이 필요한 어린 소년·아녀자 건물이 표적으로 한 손에 수갑을 든 채로 영장법정에 들어온다. 지난해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순간이다.

영장법정에 들어서는 소년들의 절반 이상은 친구들과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범죄를 행한 경우이다. 다음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다.

참고로 지난 1년간 필자가 처리한 영장사건 피의자 628명 중 소년은 약 7% (44명)이고, 이들이 행한 범죄 중 약 50% (22명)는 절도, 강도 범죄이고, 약

과 어울려 절집방, PC방,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어 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 해 필자가 처리한 사건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보니 피의자가 소년인 사건의 영장발부율(약 77%)이 피의자가 성인인 사건의 영장발부율(약 75%)보다 높게 나왔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현실에 있어서는 소년의 경우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또는 도망할 염려에 해당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하여 오히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소년법의 상당수는 가정과 학교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상

### 영장법정에서 만난 소년들

30% (13명)는 성폭력범죄였다. 이들은 우발적 총동이나 부주의, 가솔로 인한 경제적 궁핍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실무상 소년의 연령, 비행경력,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가출의 이유와 횡수, 보호자의 애정과 관심, 보호자의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소년은 교정 가능성이 성인에 비하여 높고, 구속이 소년의 심신과 장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영장전담판사로서 소년에 대한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영장법정에 들어서는 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출 후 친구들

과 어울려 절집방, PC방,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어 오기 때문이다.

현재 소년법의 영장제에는 불구속과 구속이라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 구속 이외에 소년법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에는 재판에의 출석보장과 소년법의 추가적인 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소년법을 수용 시설에 구속하지 않는 다양한 대안을 갖고 있다. 자택미결구금(home detention), 일일 혹은 저녁보고센터, 기숙제대안, 대리가정(forster home)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수용시설에 구속하지 않고 가정재판소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이 집 또는 관련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년을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장 업무를 떠난 지금은 지난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민과 갈등도 옛 추억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소년법에 대하여 구속을 대체할 다양한 대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기 고

### 이 기 수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폴리(Folly)는 중세유럽의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원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가짜 건물들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했다. ‘베르나르 슈미’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프랑스 파리 라빌레트(La Villette) 공원의 폴리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공간 미학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공 목적으로서의 현대적 폴리의 원조로 평가받고 있다. 가족의 도살장이 있었던 주제를 파사 시민들의 사랑받는 휴식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 건축가의 손은 마치 미다스의 손처럼 하나의 요소를 삼입함으로써

혀 모르고 있다. 이 의미에서 폴리 프로젝트는 사라진 역사 문화유산을 기억해 내고 지키려는 무형적 복원과 의지다.

폴리의 또 다른 목적은 쇠락한 구도심을 재창조하고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폴리 참여 작가들은 21세기 시대정신에 투철한 진보적 건축가들로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거장들이다. 참여 작가들의 명성 자체만으로도 국내외에 수많은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의 폴리는 가우디를 만나러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듯 많은 건축 전문가와 관광객들의 답사 코스가 될 것이다. 폴리 프로젝트의 구상은 1차적으로 음성 터를 핵

### 시민들에 사랑받는 ‘어번 폴리’ 기대

공간을 진화시켰다. 물결처럼 구불구불한 긴 복도 같은 길에 뿔개처럼 연결돼 있는 30여개의 빨간색 폴리들은 건물의 기능과 무관한 주제를 통해 다양성은 물론 그 주변과 결합시켜 새로운 경관을 만들고 있다.

필자는 이를 보면서 분열과 분리를 강조한 해체(解體)주의적 건축 미학을 체험했으며 마치 이 공원이 미래 도시 환경의 실험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라빌레트 공원에서 보듯 유럽, 일본 등의 폴리는 공원, 광장과 같은 도시의 공공공간에 주로 설치돼 왔다.

광주에서는 제4회 디자인비엔날레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내외에서는 처음으로 구도심 속 사라진 광주유성의 역사적 흔적을 따라 어번 폴리(Urban Folly)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폴리의 위치를 음성으로 한 것은 수백년 동안 존재해 왔던 광주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조선 초기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유성은 일제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광주사람들조차 그 존재를 전

(Core)으로 10개 장소와 인접한 푸른길 3곳에 설치한 뒤 도시가 성장하면서 가지처럼 형성된 도로망을 따라 100개 이상의 폴리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도심의 보행성과 인도 등에 설치되는 폴리로 인해 보행공간의 질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하지만 폴리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해당 장소를 해석하고 그 속에서 역사성, 지금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내놓은 나름의 해답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폴리는 시민들의 보행을 더 편하고 즐겁게 만들며 일상과 밀접한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이 프로젝트가 구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심적인 역할만으로도 그 존재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

충장로 우체국 앞 ‘우당방’으로 이 터 지어지듯 앞으로 폴리다방, 폴리카페로 불리는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풍류가락과 삼류가수 기타의 아름다운 선율과 노래가 흘러나오는 명소로서의 폴리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광주시 도시디자인과장>

### 도서관 내 하이힐 소리 거슬러... 기본 매너는 지키자

도서관에서 여성들의 매너 없는 하이힐 소리는 공포의 대상이다.

학기중 대학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이 하이힐 소음 때문에 학생들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일부 대학 학생회에서는 총여학생회에 ‘도서관에서는 하이힐 신는 것을 자체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한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여성 열람객께서는 하이힐을 신고 도서관에 오는 것을 자체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문구까지 붙여놓은 곳도 있다. 물론 여성 전체를 일반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하이힐을 신더라도 최대한 소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기본 매너 아닐까. 최소한 하이힐을 신고 도서관을 찾게 되면 열람실 내에서는 살금살금 걷는 배려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남녀차별이나 지나친 과민반응이라고 불쾌하게 느낄 일이 아니라,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자 노력하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 無 等 鼓

제주 올레길은 (사)제주올레가 지난 2007년부터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오름 등을 연결해 만든 것으로 모두 21개 코스, 350km에 달한다.

무등산 옛길은 옛사람들이 광주 도심에서 무등산에 오르던 길을 복원한 것이다. 1구간은 산수동~원효사, 2구간은 원효사~서석대, 3구간은 장원삼거리~충장사~가사문학관으로 이어진다. 총 길이는 23.17km.

제주 올레길과 무등산 옛길은 느린 걸음으로 사색과 생태탐방을 즐기는 ‘걷기 열풍’을 불러왔다. 이에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숲길과 바닷길, 산길 등 숨겨진 길을 개발하는데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광주에선 무등산 옛길에 이어 무등산 자락을 한 바퀴 도는 50km의 무등둘레길 선보였고, 전남도는 영광에서 광양에 이르는 ‘남도 갯길 6000리’를 조성 중이다. 지리산 둘레길 300km도 연내 완성될 예정이다.

또 해남에서 서울까지 500km 안팎의 삼남대로 옛길과 이순신 백의준군로

(125km), 정약용 남도 유배길(55km), 해남 팥밭 길(48km), 슬로시티 체평길(62.1km), 섬진강 생태탐방길(87km)도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산림청이 계획 중인 5대 국가 트레일(4940km)과 5대 명산 둘레길(1180km)까지 포함하면 1만km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 길은 대부분 옛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탐사해 그 가운데 좋은 길을 선별한 다음 서로 연결해 하나의 코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너도나도 길 만들기에 열을 올리다보니 되레 생태환경이나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탐방로 외에 지나치게 많은 갈래길이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다. 최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전국 숲길의 조성·관리 방법, 훼손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이 구체화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